



# 기획재정부 보도 자료

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 
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
보도 일시	2022. 12. 12.(월) 10:00	배포 일시	2022. 12. 12.(월) 09:00
담당 부서	인사과	책임자	과 장 김이한 (044-215-2230)
		팀 장 황석재 (044-215-2290)	
	세제실 조세정책과	담당자	사무관 송성일 (pjyssi@korea.kr)
		책임자	과 장 배정훈 (044-215-4110)
		담당자	서기관 백경원 (kwbaik84@korea.kr)

##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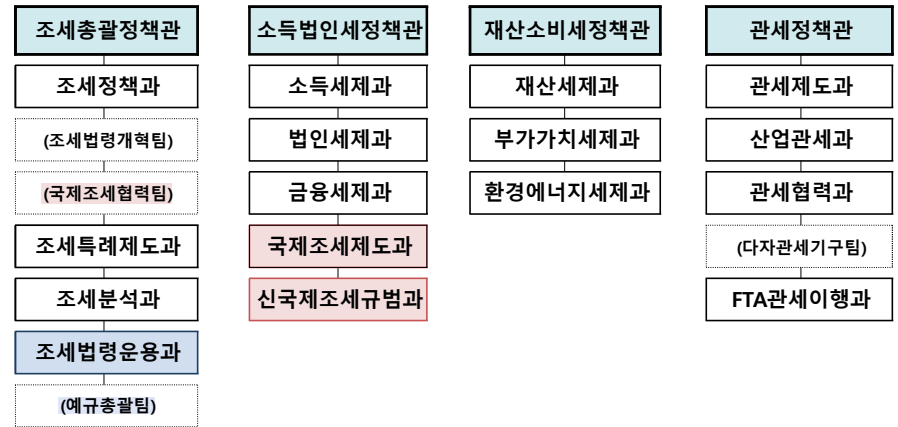
- 기획재정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실시 -

- 기획재정부는 국제조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조세정책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「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」을 입법예고 하였음('22.12.12~'22.12.19일)

### [주요 내용]

- 최근 국제 거래 확대, 새로운 상품·사업의 등장 등에 따라 국가 간 과세 문제가 복잡·다양화되고 있으며,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
  - 특히 디지털세 등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부합하게 새로운 국제 조세기준 설계 과정에 국익 차원에서 적극 참여하는 것이 중요
- 이러한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세제실 내 국제조세정책관을 신설하여 국제조세 분야 조세제도의 기획·입안과 국제거래 관련 조세의 조정 기능을 총괄 수행할 계획임
  - 현재 소득법인세정책관 소속의 국제조세제도과 및 신국제조세규범과와 조세총괄정책관실에 있는 국제조세협력팀을 국제조세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여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전담할 예정임

### < 현 행 (4정책관 16과) >



### < 개 정 안 (5정책관 15과) >



### [기대 효과]

- (기능 효율화) 현재 2개의 정책관이 분산하여 운용 중인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국제조세정책관 산하로 통합·일원화하여 효율성 제고
  - 조세총괄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조세조약 제·개정 업무와 소득법인세정책관에서 수행 중인 국제조세 기본법령 입안·운용 및 디지털세 등 국제 조세기준 마련 대응 업무를 국제조세정책관으로 이관하여 국제조세 관련 기능을 유기적으로 통합 운용

② (우리나라 국익 확보) 국제조세 관련 정책 역량은 국가경쟁력과 세수확보 등 국익에 직결되는 사항으로, 강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목소리 반영 가능

- 국제조세 제도 입안·협상 프로세스 관련 고도의 전문성이 강화되고, 국제회의에서의 발언 영향력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

③ (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편 추진) 국제조세 측면에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조세제도 개편의 추진 동력이 강화

- 금년 세제개편을 통해서 추진 중인 해외소득 면제 방식 도입 및 외국인 국채 이자소득 비과세 등을 포함하여 국제조세 제도의 선진화 방안과 시대에 뒤떨어진 국제조세조약 개정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임

#### [향후 추진일정]

□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 할 계획이며, 12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임

※ 향후 입법예고·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사항이 수정될 수 있음